



남원시 전경

# 남원도시계획 재정비 박차

### 행정구역 전체 대상 금년 내 마무리 목표... 장기 발전방향 수립

남원시는 2010년 12월 결정 고시한 4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계획에 이은 5차 2020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해 금년 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시행정구역 전체(752.81km)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기초조사를 통하여 재정비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도시계획지역 내 9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 등 검토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2014년 3월에 착수하여, 도시지역(30km)인 남원, 운봉, 인월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개발

가능지인 계획관리(131km), 생산관리(67km), 보존관리(79km)지역에 대한 발전상황 등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 도시환경의 조성과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고도지구 45개소에 대해서도 도시환경과 경관 등 전체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고고도지구 변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 내 산재된 주택 및 농지 등 공원에 부적합한 부지에 대해서도 제적을 하여 시민들의 행위가 능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을 해제하거나, 신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231개소로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원, 녹지 등으로 구분되며, 20년 이상 된 시설은 177개소로 2020년 6월까지 개발 또는 매입하지 않으면 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시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계획한 내용들이 개발되어 시민 편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앞으로 남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주민열람공고(14일), 시의회외견청취, 이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내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 장기발전방향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운암면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개통

### 월면·지천·청운·운정 마을 운행... 성인 1000원

임실군은 25일 운암면사무소에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행에 나섰다.

이날 개통식은 심민 군수, 행복버스 한정면허 사업자로 선정된 임순여객(주) 대표를 비롯한 군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행복버스 개통을 축하했다.

군은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행복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했으며, 이번 개통된 행복버스는 운암면 소재지 및 주요거점을 순환하고 효율성을 위해 평일과 주말 노선은 변경돼 운영된다.

월면, 지천, 청운, 운정 등 4개 마을에서 운행하며, 단일요금으로 성인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우대승차권 배부, 장애인 콜택시 및 중·고등학교 통학 택시를 운영하고, 올해는 버스 단일요금제에 이어 운암면 행복버스를 개통했으며, 지역이 넓고 오지마을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민생적 불편을 겪고 있는 운암면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운암면 행복버스 운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이란 교통요지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

교통운영체제로 '부르면 달리는 교통서비스'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미화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임실군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특별안전교육'을 25일 실시했다.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12개 읍·면 환경미화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수열 한국 응급구조 사업단 강사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으며, 마네킹을 활용한 '기도폐쇄 응급처치요령(하임리히법)' 등 체험위주 교육으로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김용도 씨 '나전 서조문 좌경대'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대상

이해심 '나전 국당초문 경함' · 김세연 '선(線)' 금상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19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심사 결과 김용도씨의 '나전 서조문 좌경대(사진)'가 대상에 선정되었다.

목공예대전은 전국에서 접수된 총 82점의 작품을 공예관련 교수 및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영환 대구대 명예교수)에서 심사해 창작과 실용부문 총 3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작인 나전 서조문 좌경대는 좌경 전체적인 기능과 문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구도의 정교함과 철의 깔금함이 빛나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밖의 수상작으로는 금상에 이해심의 '나전 국당초문 경함', 김세연의 '선(線)', 은상에 오왕택의 '사계=보석함', 박만기의 '귀감문 사주함', 김규수의 '자연의 점사' 등이 선정되었다.

수상작품은 제86회 춘향제 개막일인 5월 13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시상식을 갖고, 이후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3일간(5. 14~5. 16) 전시된다.

특히 이번 19회 남원시 목공예대전은 출품작이 양과 질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창의적인 시도를 한 작품들도 볼 수 있는 발전적인 대전이라며 심사위원들이 평했다.

한편 금년 대회는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창작부문과 실용부문에 나누어 상급과 상장을 수여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목공예대전



### 임실 강진면민의 날 '성황'

임실군 강진면과 체육회 주관으로 '제10회 강진면민의 날 대축제'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심민 군수, 이용호 국회의원 당선자, 문홍식 군의회의장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재전·재경·재부산 향우회원,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담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강진면 농악단의 풍년기원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투호놀이, 고리걸기, 윷놀이 등과 신나는 예술버스, 문화 노래자랑,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의 스포츠댄스,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민속경기와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돼 함께 어울리고 주민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면민의 장 시상식이 열려 김순자(64세) 생활개선회 회장은 공로장, 문화체육장은 정대영(57세)씨, 효열장은 박만섭(73세)씨가 수상했으며, 주민회합 및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조옥선(58세) 민원봉사과장은 공로패, 지역발전 및 주민회합을 위해 선진적 역할과 헌신적 봉사에 매진한 신상환(췌신아비터) 대표와 홍성여 농기센터 기술보급과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 무장기포기념제 · 무장음성축제

### 동학농민혁명 122주년... 신용하 교수 '녹두대상' 수상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음성축제'가 개최됐다.

25일 고창군 공음면 무장기포지와 무장음성 일원에서 열린 행사는 박우정 군수, 이상호 군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군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무장음성축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출정사, 포고문 낭독, 현화·봉양에 이어 무장기포지에서 무장음성까지 약 8.3km에 걸친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선운사 마루보살 비탈취 및 무장음성 무열일성 재현, 기념식 등이 진행됐다.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행사 참석자들은 자유와 평등·자주의 가치를 내

걸고 목숨을 던져 피와 함성으로 걸 어갔던 동학농민들의 발자취를 따라 농민군들의 염원과 그날의 함성을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자주의 숭고한 정신은 후세에도 꼭 현창되고 계승해야 한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제9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신용하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신 교수는 1988년 한국학보 여름호에서 제1차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3월 20일 무장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혁명군의 면모를 갖춘 혁명 운동이었으며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된 곳은 고창군 무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사회'에서는 무장포고문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풀이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립·성호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선정

고창군립도서관이 각종 부처 및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채로운 행사 제공과 군민의 문화생활 체험 기회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25일 군립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성호도서관을 포함한 2개 관 2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군민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올해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고창 생활문화에서 인류의 삶을 엿보다' (고창군립도서관)와 '건강을 듬뿍 담은 인문학 (성호도서관)'을 주제로 기초 인문학에서 심화 인문학까지 현장에서 두루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립도서관은 이외에도 도 공모사업인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선정돼 지역 내 작은도서관(공소 해마루, 아산 선운사, 대산 큰별, 무장 글밭)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노래로 부르는 영어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운영

남원시는 5월 2일부터 16개 읍·면사무소에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읍·면사무소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제도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 요령 등에 관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읍면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신청은 5월부터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제청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9월 말까지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시에서는 국제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갖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16개 읍·면 담당직원이 ARS전화(1544-9944) 개인별인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등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